

경제사회발전 트렌드 분석: 지표연구*

박 명 호 (한국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서 론

경제사회발전트렌드 분석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 연구의 일환으로 지표연구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표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2009년에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지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도 지표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OECD 회원국과 비교하였다. OECD 회원국과의 비교는 한국의 지난 20년간의 경제 성과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1990년에서 2007년까지 18년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시도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시계열과 횡단면 분석을 겸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¹⁾.

2010년도 연구에서는 2009년도의 연구 방법론 및 지표 체계의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지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 간 순위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009년도 지표연구와는 달리, 2010년 지표연구는 각국의 트렌드 분석 및 위상 파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표연구의 대상 국가를 OECD 회원국에 G20 국가를 추가하였다²⁾.

* 본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경제사회발전 트렌드분석: 지표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임. 본 연구는 박명호(한국의국어대학교), 강상인(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완근(한국의국어대학교), 이영섭(서울대학교), 장용석(연세대학교), 한상범(경기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고, 박찬열(한국의대 대학원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음.

1)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명호 외(2010) 참조.

〈표 1〉 지표구성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내용 | 세부내용 |
|------|---------------|---------|----------|-------------------------------|
| 성장동력 | 안정적 성장 | 소득 | 1인당국민소득 | 1인당 국민소득 |
| | | 거시 안정성 | 물가 | 인플레이션 |
| | | | 재정 | 정부부채비중 |
| | | 금융발전 | 금융규모 | (대민간여신/GDP) + (자본시장 시가총액/GDP) |
| | | | 활동성 | (대민간여신/GDP) × (주식총거래대금/GDP) |
| | | 경제개방성 | 무역 | 무역규모비율 |
| | | | 외국인투자 | FDI(inflow)비율 |
| | 산업경쟁력 | 정보화 | 인터넷 | 인터넷 사용자 비율 |
| | | | 통신 | 이동통신가입자 비율 |
| | | | 컴퓨터 | PC 보급률 |
| | | 기술혁신 | R&D | 연구개발총사자 비율 |
| | | | 특허 | 미국특허등록건수 |
| | | 인적자본 | 노동의 양 | 남자고용률 |
| | | | | 여자고용률 |
| | | | 노동의 질 | 노동생산성 |
| | | | 교육 수준 | 고등교육이수율 |
| 사회통합 |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 자유 | 경제적자유 | 경제자유지수 |
| | | | 사회·정치분야 | 언론자유지수 |
| | | 안전 | 경제안전 | 실업률 |
| | | | |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
| | | | 사회안전 | 노령고용률 |
| | | | | 도로사망률 |
| | | | | 건강지출비율 |
| | | | | 자살률 |
| | | | | 범죄율 |
| | | 역능 | 경제적 역능 | 노동참가율 |
| | | | 정치적 역능 | 정치체제 민주성 |
| | | 복지/분배 | 사회지출 | 복지지출 |
| | | | 분배 | 지니계수 |
| | |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 | 출산률 |
| | | | 고령화 | 고령화 인구 비율 |
| |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 사회적 자본 | 신뢰 | 일반신뢰 |
| | | | | 기관신뢰 |
| | | 관용 사회 | 시민참여 | 시민참여지수 |
| | | | 장애인배려 | 장애인노동자 관련법률 수 |
| | | | 관용성 | 타인에 대한 관용 |
| | | 정부 | 외국인 수용성 | 외국인 비율 |
| | | | 효과성 | 정부효과성지수 |
| | | | 법치 | 법치지수 |
| | | | 부패 | 부패지수 |
| | | | 국제 사회 기여 | ODA |
| 환경 | 환경여건 | 자원효율성 | 에너지 | 에너지사용량/GDP |
| | | | 물 | 담수추출량/GDP |
| | | 환경위해성 | CO2 | CO2 배출량/GDP |
| | | | 미세먼지 | 미세먼지농도 |
| | | | 폐기물 | 폐기물배출량/GDP |
| | 재생능력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비율 | 신재생에너지사용/총에너지사용량 |
| | | 상하수보급 | 상수보급률 | 상수보급률 |

2) OECD 31개 회원국과 G 20 국가 중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포함해 3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본 보고서의 경제사회발전지표는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의 3개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다. 성장동력은 안정적 성장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산업경쟁력이라는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중분류 중 하나인 안정적 성장은 소득, 거시 안정성, 금융발전 및 경제개방성 등 4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졌다. 성장동력의 또 다른 중분류 구분요소인 산업경쟁력은 정보화, 기술혁신, 인적 자본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대분류 사회통합은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정도와, 그 사회의 관용성 및 정부의 신뢰성 수준 등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한편, 중분류인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은 자유, 안전, 역능, 복지/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5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대분류 환경은 환경여건과 재생능력 등 2개의 중분류로 구분되며, 재생능력은 신재생에너지 및 상하수도 보급비율로 측정되는 환경기술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개의 대분류와 6개의 중분류 외에 19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20년 간 글로벌 트렌드를 추적하였다. 여기서 글로벌 트렌드는 OECD와 G20 국가 39개국의 글로벌 트렌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은 본 연구의 지표체계에 따라서 지난 20년 간 39개국의 성장, 사회, 환경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39개 국가들의 국가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지난 20년간 39개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점(1990년)과 종점(2008년)의 상대적 순위와 1990년대(1990-2000)와 2000년대(2000-2008), 전 기간(1990-2008)에 걸친 변화추세를 대분류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제사회발전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OECD 및 G20 국가의 글로벌 트렌드를 대분류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대분류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글로벌 트렌드 분석

1) 데이터 특성 및 표준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는 OECD 31개 회원국과 G20 국가를 포함하는 39개 국가에 대한 1990년에서 2008년까지 19년 기간의 패널통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시간 추세가 있는 통계, 서베이 통계, 지수 형태의 통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계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시간추세가 있는 통계는 외삽법이나 내삽법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으며, 서베이 통계의 경우 step function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수의 통계 수치가 빠져 있는 경우, 만약 동 지수가 서베이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면 step function으로 처리하고 서베이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시간추세가 있는 경우는 외삽법이나 내삽법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표 2〉 세부지표 특성 및 출처

| 세부내용 | 주요출처 | 지표특성 | 결측국가 |
|-------------------------------|--|--------|---------------------------------------|
| 1인당 국민소득 | World Bank WDI | Hard | |
| 인플레이션 | | Hard | |
| 정부부채비중 | World Bank WDI, CIA Factbook | Hard | |
| 금융유동부채/GDP + 주식시가총액규모/GDP | World Bank, Financial Structure Dataset | Hard | China |
| 금융기관대민간여신/GDP + 주식거래규모/GDP | | Hard | China |
| 무역규모비율 | World Bank WDI | Hard | |
| FDI(inflow)비율 | | Hard | |
| 인터넷 사용자 비율 | | Hard | |
| 이동통신가입자 비율 | | Hard | |
| PC 보급률 | | Hard | |
| 연구개발총자비율 | UNESCO | Hard | |
| 미국특허등록건수 | USPTO | Hard | |
| 남자/여자고용률 | World Bank WDI | Hard | |
| 노동생산성 | | Hard | |
| 고등교육이수율 | World Bank, Education Statistics | Hard | |
| 교육지출비율 | UNESCO | Hard | |
| 경제자유지수 | Heritage Foundation | Survey | |
| 언론자유지수 | Freedom House | Survey | |
| 실업률 | World Bank WDI | Hard | |
|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 OECD stats | Hard | Chile, non-OECD |
| 노령고용률 | ILO | Hard | China |
| 도로사망률 | UNECE | Hard | Brazil, China, Saudi Arabia |
| 건강지출비율 | WHO | Hard | |
| 자살률 | | Hard | Indonesia, Saudi Arabia |
| 범죄율 | UNODC | Hard | Brazil |
| 노동참가율 | World Bank WDI | Hard | |
| 정치체제 민주성 | Freedom house | Survey | |
| 복지지출 | OECD Factbook | Hard | Chile, non-OECD |
| 지니계수 | UN University | Hard | Saudi Arabia |
| 출산률/고령인구 비율 | World Bank WDI | Hard | |
| 일반신뢰/기관신뢰 | World Values Survey | Survey | |
| 시민참여지수 | | Survey | Saudi Arabia |
| 장애인노동자 관련법률 수 | ILO | Hard | |
| 타인에 대한 관용 | World Values Survey | Survey | |
| 외국인 비율 | World Bank WDI | Hard | |
| 정부효과성지수 |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Survey | |
| 법치지수 | The World Justice Forum | Survey | |
| 부패지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Survey | |
| ODA | OECD stats | Hard | |
| 에너지사용량/GDP | EIA | Hard | |
| 담수추출량/GDP | FAO | Hard | |
| CO2 배출량/GDP | World Bank WDI | Hard | |
| 미세먼지농도 | | Hard | |
| 폐기물배출량/GDP | OECD stats | Hard | Indonesia, Saudi Arabia, Argentina |
| 신재생에너지사용/총에너지사용량 | EIA | Hard | |
| 상수도보급 인구 비율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 Hard | |

일부 변수에서는 심각한 outlier 문제가 있었다.³⁾ 우선, 인플레이션 변수는 데이터 실측값이 수천 %에서 마이너스 13%에 달하고 있다. 수천 %의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서 물가의 통제 수준을 넘어선 값이다. 실제로 물가는 20% 수준만 넘어도 일정한 통제 수준을 넘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20%를 넘는 인플레이션은 그 값이 1,000%이던 2,000%이던 20%와 같은 값을 주었다. 한편,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을수록 좋은데 이를 단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디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값이 가장 좋은 값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관리 측면에서 [0, 2%] 구간은 가장 우수한 물가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 구간 값은 모두 최대값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그 절대값이 클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outlier가 문제되는 또 다른 변수는 FDI이다⁴⁾. 대부분 국가의 FDI/GDP 비율은 20%를 넘지 않지만 특정 국가 하나가 그 값이 20,000%를 넘는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의 FDI/GDP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를 넘는 값은 모두 최대값으로 간주하였다.

특정 변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체 시기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수 및 연관된 지수를 만들거나 순위를 정할 때 동 수치들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지표 관련 데이터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분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금융발전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성장동력 지수에서 중국이 제외되었다⁵⁾. 지표 체계에 상응하는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특성,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 결측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에 정리되었다.⁶⁾

한편, 2009년도에 개발한 경제사회발전지표에서는 Osberg and Sharpe(2005)의 표준화 방법을 원용하였다. Osberg and Sharpe(2005)의 표준화방식은 기본적으로는 HDI의 표준화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text{Max} = \text{global Max} + |\text{global Max} * 10\%|$, $\text{global Min} - |\text{global Min} * 10\%|$ 로 하였다.

$$\text{LSM 표준화 지수} = (\text{Value} - \text{Min}) / (\text{Max} - \text{Min})$$

$$(\text{여기서, Max} = \text{global Max} + |\text{global Max} * 10\%|,$$

$$\text{Min} = \text{global Min} - |\text{global Min} * 10\%|)$$

이러한 표준화는 각각의 수치를 [0, 1] 사이로 선형화 시키는 것으로서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

3) 본 연구는 LSM 방식의 표준화를 하는데 이 경우 변수의 구간 값이 커질수록 표준화된 변수의 분모가 증가한다. 그 결과 실제 관측치 값 간의 변별력은 줄어든다. 변수 값이 outlier 값을 지니는 경우는 변수 값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outlier를 조정해야 한다.

4) FDI 변수는 FDI/GDP 값으로 측정한다.

5)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금융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를 갖고 성장동력 2를 만들었음.

6) 사회통합 분야는 칠레와 OECD 비회원국들의 노령자의 사회지출 데이터가 없으므로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는 칠레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0국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폐기물 데이터가 없어서 37개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만들었다.

라 일국 내 변화율도 비교 가능토록 한다. 이런 LSM 지수는 표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균 수렴 현상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지수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09년도 경제사회발전지표는 LSM으로 표준화시킨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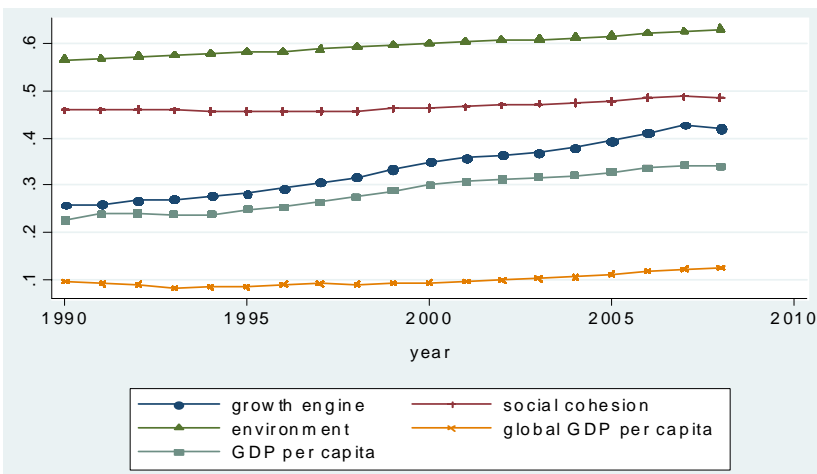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LSM 표준화 지수는 과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특정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LSM으로 표준화한 지수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특정 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 LSM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 값과 표준편차로 조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 값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LSM 방식에서는 특정 변수의 영향력이 다소 과장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아 순위에는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해 연구와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 본 연구는 기존 LSM 방식의 표준화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Global trend 분석

(1) 영역별 분석

OECD 및 G20국가의 기본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지수의 연도별 평균을 전세계 국가 및 지표산정대상 39개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평균의 시계열 추이와 비교했다. 세계 1인당 GDP(global GDP per capita)는 Maddison(2010)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1990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전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자료를 본 연구에서의 자료변환 방법인 LSM으로 변환한 후 표준화 변수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였다. OECD+G20 1인당 GDP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9개국만의 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표준화된 1인당 GDP의 연도별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림 1〉 글로벌 트렌드: 지수 기준



<그림 1>에는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지수의 시계열적 추이와 세계 1인당 GDP 및 OECD+G20 1인당 GDP 추이가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목할 점은 표준화를 위한 샘플 국가 수가 더 많고 최빈국들까지 포함된 세계 1인당 GDP(global GDP per capita)는 OECD+G20 1인당 GDP(GDP per capita)에 비해 그 수준 및 성장률이 모두 낮다는 점이다. 둘째, 영역별로는 성장동력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1인당 GDP 증가율을 상회한다. 셋째, 1990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사회통합의 변화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국가군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사회통합 부문의 개선 정도가 미진한 이유는 전체 대상국가의 추세라기보다는 일부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국가의 개선 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넷째, 환경은 지난 20년 동안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부터 환경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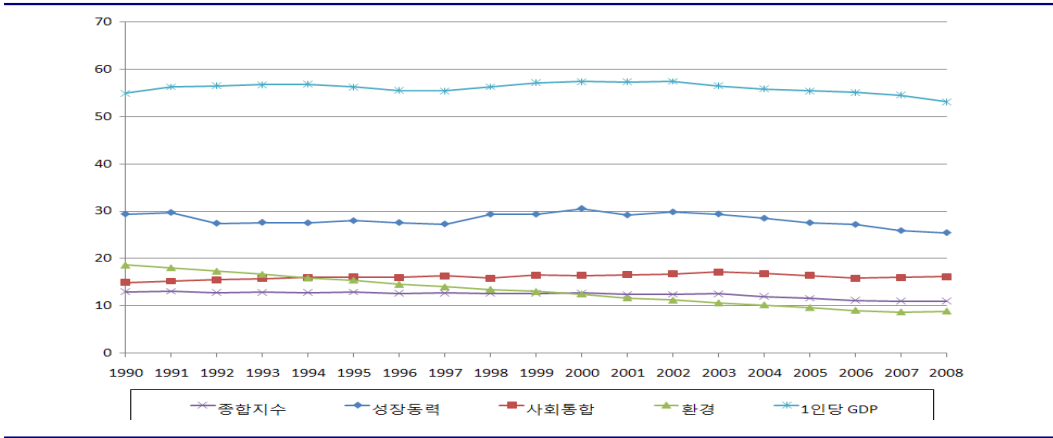
(2) 변동계수 및 분포 분석

국가 간에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의 격차 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국가별 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한 동시에 그 분포를 구하였다. 변동계수는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분산 및 표준편차처럼 표본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그러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기 때문에 변수의 산포도를 평균에 대비해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unit free) 보여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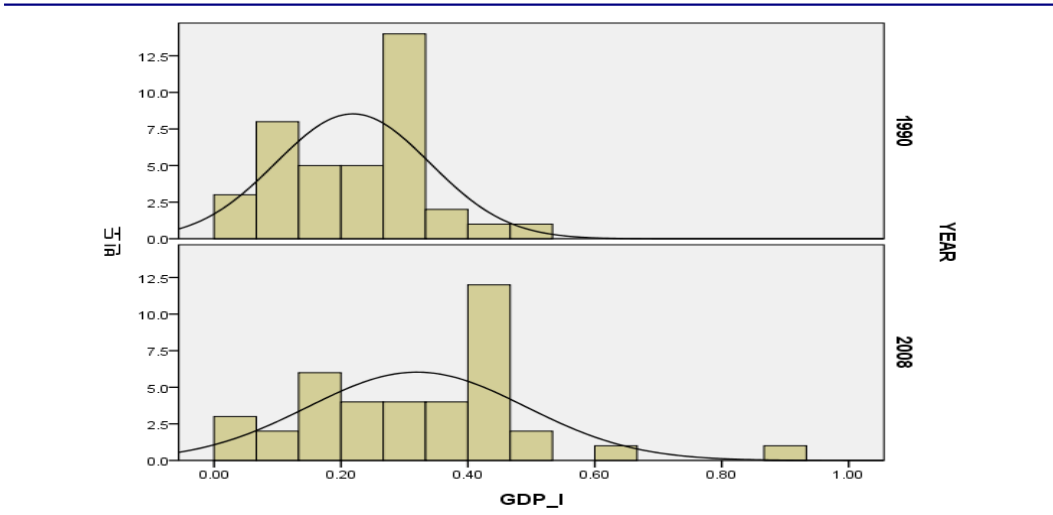
변동계수 추이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림 2> 참조). 첫째, 성장동력의 경우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1990년 이후 매우 완만하게 작아지던 변동계수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커지던 39개국 선도국가들의 성장동력 수준의 격차가 2000년 초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의 통합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1990년 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 패턴은 1인당 GDP 변동계수의 시계열 추이와도 유사하다. 둘째, 환경 부문은 변동계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도국가들의 환경격차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교토의정서 합의 이후 지구온난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인식 공유와 적극적인 국가간 공조 노력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분류 기준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변동계수는 비록 완만하긴 하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경제측면과 환경측면에서 선도국가들의 격차가 1990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39개 선도국가의 사회통합 정도의 격차가 지속적

인 세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통합 수준의 국가간 불균형 심화는 주목할 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부 선도국가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역능성, 배려와 관용이 확대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간 불평등 확대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별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변동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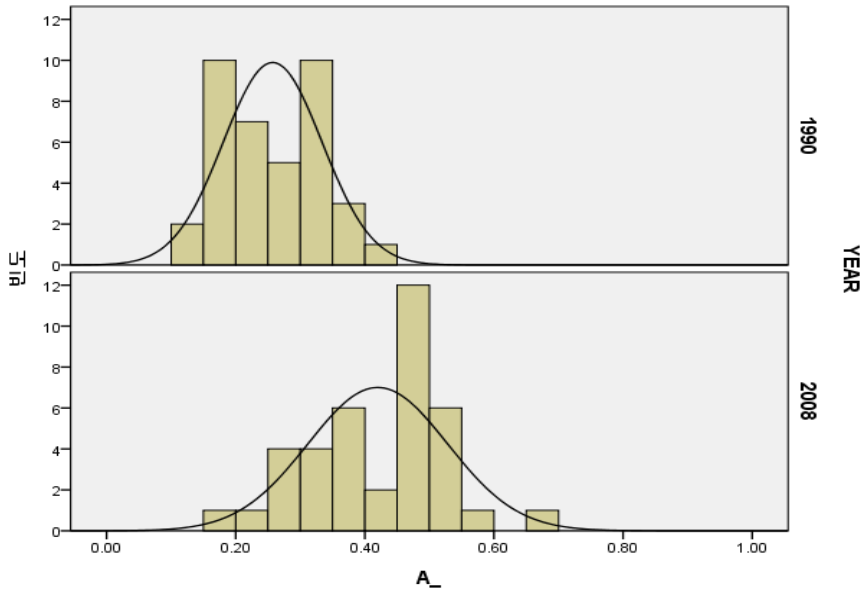


〈그림 3〉 1인당 GDP 분포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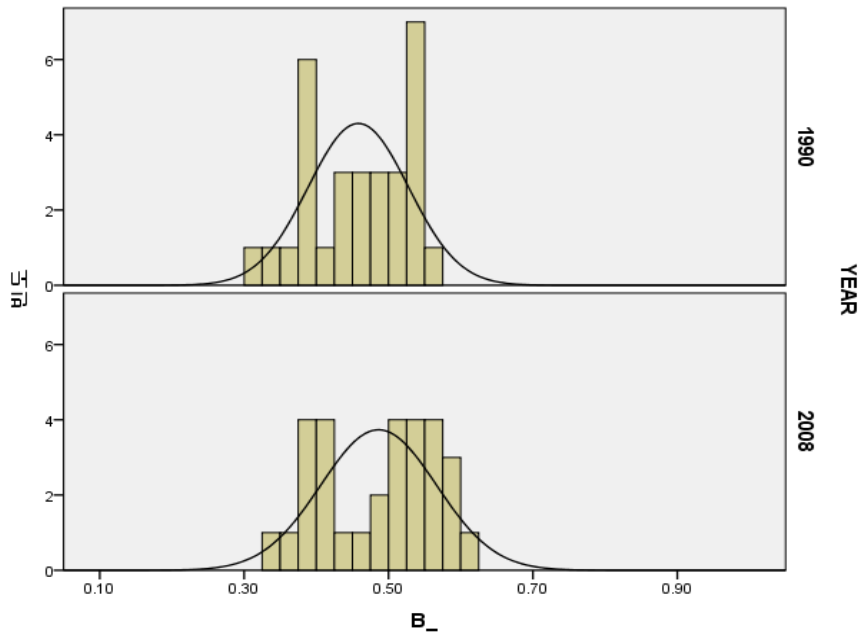


7) 〈그림 7〉, 〈그림 8〉, 〈그림 9〉에서 x축은 대분류 영역별 표준화된 평균값을 나타내고 y축은 국가 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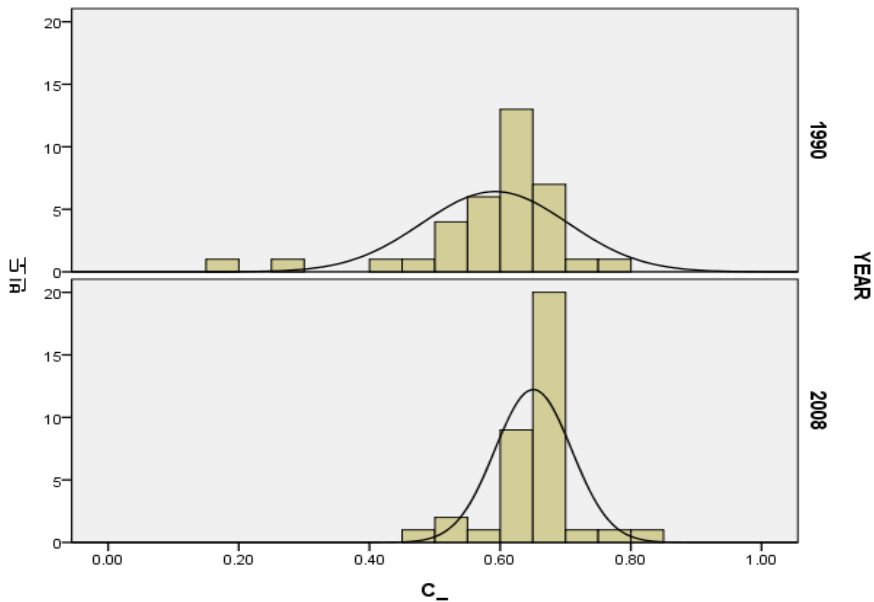
〈그림 4〉 성장동력 분포



〈그림 5〉 사회통합 지수 분포



〈그림 6〉 환경 지수 분포



3. 국가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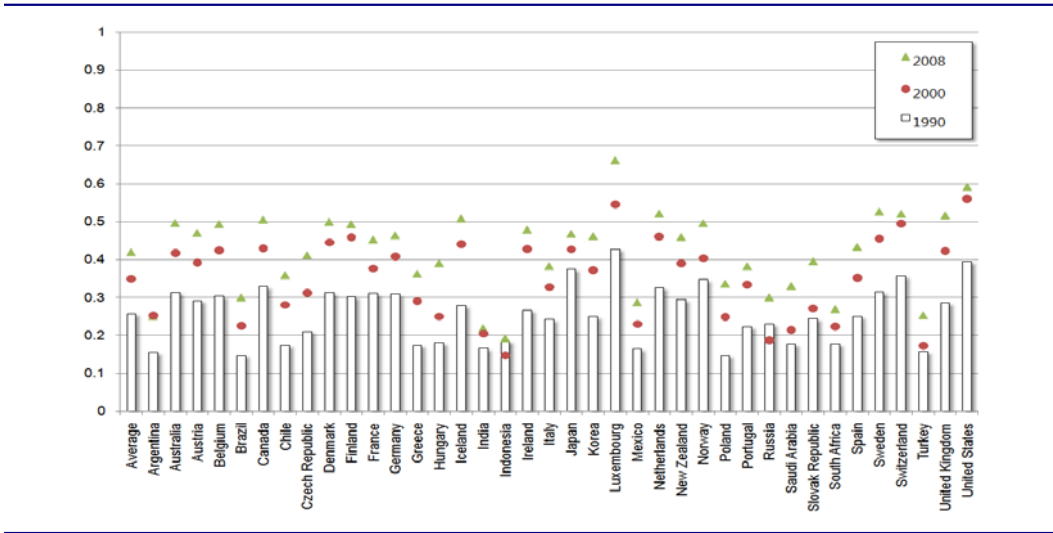
1) 성장동력

성장동력 지수의 국가별 추이를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의 2위에서 1990년대에 대폭 상승하여 2000년에 1위가 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8년에 다시 2위로 내려왔다(〈그림 7〉 참조). 룩셈부르크 및 미국 비롯한 상위권 국가는 대체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규모는 커지면서 증가율은 둔화되는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지수 및 성장률을 시기별 및 국가별로 살펴보자.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는 유럽의 소국인 폴란드(5.46%), 그리스(5.28%),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2000년대는 러시아(6.13%), 헝가리(5.77%),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이 성장세를 주도하였다. 러시아의 성장동력이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좋아진 것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국제유가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칠레와 브라질은 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장동력 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폴란드, 체코 등 구 동구권 국가들과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개도국 등은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 성장동

력은 대상국가간 빠른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성장동력 지수의 국가별 추이



한편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성장동력이 1990년대에 하락하여 2000년 수준이 1990년도 값보다 절대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상 국가 중 2008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2000년대 들어 성장동력이 약화하여 1990년대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90년대에는 빠른 성장세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유일하게 감소세로 돌아선다. 이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를 포함한 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200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성장동력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 국가별 성장동력지수 수준 및 변화율

| Country | 순위 | | | 지수값 | | | 연평균변화율 (%) | | |
|----------------|------|------|------|------|------|------|------------|-------|-------|
| | 1990 | 2000 | 2008 | 1990 | 2000 | 2008 | 90-00 | 00-08 | 90-08 |
| Average | ... | ... | ... | 0.26 | 0.35 | 0.42 | 3.11 | 2.33 | 2.76 |
| Argentina | 36 | 28 | 36 | 0.15 | 0.25 | 0.25 | 5.00 | -0.06 | 2.72 |
| Australia | 9 | 14 | 10 | 0.31 | 0.42 | 0.50 | 2.90 | 2.22 | 2.60 |
| Austria | 16 | 17 | 15 | 0.29 | 0.39 | 0.47 | 3.01 | 2.31 | 2.70 |
| Belgium | 13 | 12 | 12 | 0.30 | 0.42 | 0.49 | 3.44 | 1.91 | 2.76 |
| Brazil | 37 | 32 | 32 | 0.15 | 0.22 | 0.30 | 4.35 | 3.70 | 4.06 |
| Canada | 6 | 9 | 8 | 0.33 | 0.43 | 0.51 | 2.73 | 2.05 | 2.43 |
| Chile | 32 | 26 | 28 | 0.17 | 0.28 | 0.36 | 4.94 | 3.14 | 4.14 |
| China | ... | ... | ... | ... | ... | ... | ... | ... | ... |
| Czech Republic | 26 | 24 | 22 | 0.21 | 0.31 | 0.41 | 4.07 | 3.50 | 3.82 |

| | | | | | | | | | |
|-----------------|----|----|----|------|------|------|-------|------|------|
| Denmark | 10 | 7 | 9 | 0.31 | 0.45 | 0.50 | 3.61 | 1.45 | 2.65 |
| Finland | 14 | 5 | 13 | 0.30 | 0.46 | 0.49 | 4.28 | 0.91 | 2.77 |
| France | 11 | 19 | 20 | 0.31 | 0.38 | 0.45 | 1.95 | 2.36 | 2.13 |
| Germany | 12 | 15 | 17 | 0.31 | 0.41 | 0.46 | 2.86 | 1.62 | 2.30 |
| Greece | 31 | 25 | 27 | 0.17 | 0.29 | 0.36 | 5.28 | 2.82 | 4.18 |
| Hungary | 28 | 29 | 24 | 0.18 | 0.25 | 0.39 | 3.34 | 5.77 | 4.41 |
| Iceland | 18 | 8 | 7 | 0.28 | 0.44 | 0.51 | 4.73 | 1.81 | 3.42 |
| India | 33 | 35 | 37 | 0.17 | 0.20 | 0.22 | 2.13 | 0.86 | 1.57 |
| Indonesia | 27 | 38 | 38 | 0.18 | 0.15 | 0.19 | -2.20 | 3.34 | 0.22 |
| Ireland | 19 | 10 | 14 | 0.27 | 0.43 | 0.48 | 4.88 | 1.43 | 3.33 |
| Italy | 23 | 23 | 25 | 0.24 | 0.33 | 0.38 | 3.09 | 1.98 | 2.59 |
| Japan | 3 | 11 | 16 | 0.37 | 0.43 | 0.47 | 1.33 | 1.16 | 1.26 |
| Korea | 21 | 20 | 18 | 0.25 | 0.37 | 0.46 | 4.10 | 2.76 | 3.50 |
| Luxembourg | 1 | 2 | 1 | 0.43 | 0.55 | 0.66 | 2.48 | 2.46 | 2.47 |
| Mexico | 34 | 31 | 33 | 0.16 | 0.23 | 0.29 | 3.41 | 2.84 | 3.15 |
| Netherlands | 7 | 4 | 4 | 0.33 | 0.46 | 0.52 | 3.53 | 1.56 | 2.65 |
| New Zealand | 15 | 18 | 19 | 0.29 | 0.39 | 0.46 | 2.88 | 2.08 | 2.52 |
| Norway | 5 | 16 | 11 | 0.35 | 0.40 | 0.50 | 1.53 | 2.63 | 2.02 |
| Poland | 38 | 30 | 29 | 0.15 | 0.25 | 0.34 | 5.46 | 3.86 | 4.75 |
| Portugal | 25 | 22 | 26 | 0.22 | 0.33 | 0.38 | 4.13 | 1.74 | 3.06 |
| Russia | 24 | 36 | 31 | 0.23 | 0.19 | 0.30 | -2.04 | 6.13 | 1.51 |
| Saudi Arabia | 30 | 34 | 30 | 0.18 | 0.21 | 0.33 | 1.95 | 5.61 | 3.56 |
| Slovak Republic | 22 | 27 | 23 | 0.24 | 0.27 | 0.40 | 1.12 | 4.83 | 2.75 |
| South Africa | 29 | 33 | 34 | 0.18 | 0.22 | 0.27 | 2.35 | 2.41 | 2.38 |
| Spain | 20 | 21 | 21 | 0.25 | 0.35 | 0.43 | 3.47 | 2.67 | 3.11 |
| Sweden | 8 | 6 | 3 | 0.31 | 0.46 | 0.53 | 3.79 | 1.84 | 2.92 |
| Switzerland | 4 | 3 | 5 | 0.36 | 0.49 | 0.52 | 3.33 | 0.65 | 2.13 |
| Turkey | 35 | 37 | 35 | 0.16 | 0.17 | 0.25 | 0.93 | 4.92 | 2.69 |
| United Kingdom | 17 | 13 | 6 | 0.29 | 0.42 | 0.52 | 4.02 | 2.55 | 3.36 |
| United States | 2 | 1 | 2 | 0.39 | 0.56 | 0.59 | 3.58 | 0.70 | 2.29 |

2) 사회통합

사회통합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사회통합지수 상위권 국가는 사회통합 지수의 성장률이 전체 평균 0.32%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사회통합 정도의 개선을 이룬 반면, 터키와 멕시코 등 사회통합지수 하위 국가는 사회통합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사회통합지수 상위 5개국의 전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는데 비하여 하위 5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을 국가적 목표로 매우 중시여기는 것으로 알려진 대다수 유럽 국가는 사회통합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증가율 역시 견조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터키는 전체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0.20% 증가율 기록하였다.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이태리 중에서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국가는 멕시코와 포르투갈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장동력의 경우 동 지수가 높은 국가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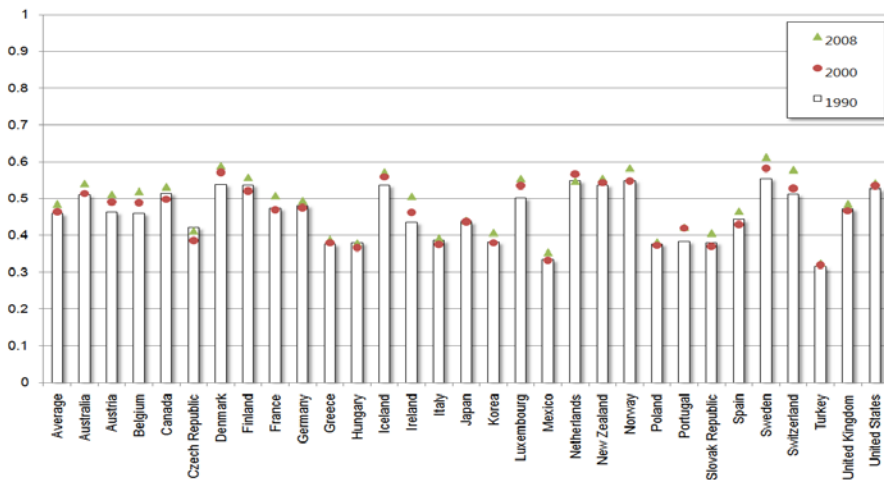
장세가 둔화되고 동 지수가 낮은 국가의 성장세가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표 4> 참조).

〈표 4〉 국가별 사회통합지수 수준 및 변화율

| Country | 순위 | | | 지수값 | | | 연평균변화율 (%) | | |
|-----------------|------|------|------|------|------|------|------------|-------|-------|
| | 1990 | 2000 | 2008 | 1990 | 2000 | 2008 | 90-00 | 00-08 | 90-08 |
| Average | ... | ... | ... | 0.46 | 0.46 | 0.49 | 0.15 | 0.56 | 0.33 |
| Argentina | ... | ... | ... | ... | ... | ... | ... | ... | ... |
| Australia | 11 | 11 | 11 | 0.51 | 0.51 | 0.54 | 0.14 | 0.62 | 0.36 |
| Austria | 16 | 13 | 14 | 0.46 | 0.49 | 0.51 | 0.57 | 0.52 | 0.55 |
| Belgium | 17 | 14 | 13 | 0.46 | 0.49 | 0.52 | 0.66 | 0.74 | 0.69 |
| Brazil | ... | ... | ... | ... | ... | ... | ... | ... | ... |
| Canada | 9 | 12 | 12 | 0.51 | 0.50 | 0.53 | -0.27 | 0.82 | 0.21 |
| Chile | ... | ... | ... | ... | ... | ... | ... | ... | ... |
| China | ... | ... | ... | ... | ... | ... | ... | ... | ... |
| Czech Republic | 21 | 22 | 22 | 0.42 | 0.39 | 0.41 | -0.85 | 0.82 | -0.11 |
| Denmark | 4 | 2 | 2 | 0.53 | 0.57 | 0.59 | 0.69 | 0.36 | 0.55 |
| Finland | 7 | 10 | 6 | 0.53 | 0.52 | 0.56 | -0.19 | 0.85 | 0.27 |
| France | 14 | 16 | 15 | 0.48 | 0.47 | 0.51 | -0.13 | 0.96 | 0.35 |
| Germany | 13 | 15 | 17 | 0.48 | 0.48 | 0.49 | -0.15 | 0.50 | 0.14 |
| Greece | 26 | 24 | 26 | 0.38 | 0.38 | 0.39 | 0.08 | 0.32 | 0.19 |
| Hungary | 27 | 28 | 28 | 0.38 | 0.37 | 0.38 | -0.26 | 0.42 | 0.04 |
| Iceland | 6 | 4 | 5 | 0.53 | 0.56 | 0.57 | 0.50 | 0.25 | 0.39 |
| India | ... | ... | ... | ... | ... | ... | ... | ... | ... |
| Indonesia | ... | ... | ... | ... | ... | ... | ... | ... | ... |
| Ireland | 20 | 18 | 16 | 0.43 | 0.46 | 0.51 | 0.72 | 1.14 | 0.91 |
| Italy | 23 | 25 | 25 | 0.39 | 0.38 | 0.39 | -0.25 | 0.58 | 0.12 |
| Japan | 18 | 19 | 20 | 0.44 | 0.44 | 0.44 | -0.10 | 0.09 | -0.02 |
| Korea | 22 | 23 | 23 | 0.39 | 0.38 | 0.41 | -0.18 | 0.74 | 0.23 |
| Luxembourg | 12 | 7 | 7 | 0.50 | 0.54 | 0.56 | 0.73 | 0.47 | 0.62 |
| Mexico | 29 | 29 | 29 | 0.33 | 0.33 | 0.36 | -0.04 | 0.83 | 0.34 |
| Netherlands | 3 | 3 | 9 | 0.55 | 0.57 | 0.55 | 0.39 | -0.45 | 0.02 |
| New Zealand | 5 | 6 | 8 | 0.53 | 0.54 | 0.56 | 0.19 | 0.28 | 0.23 |
| Norway | 2 | 5 | 3 | 0.55 | 0.55 | 0.58 | -0.01 | 0.78 | 0.34 |
| Poland | 28 | 26 | 27 | 0.37 | 0.37 | 0.38 | 0.02 | 0.32 | 0.15 |
| Portugal | 24 | 21 | 21 | 0.38 | 0.42 | 0.42 | 0.95 | 0.06 | 0.55 |
| Russia | ... | ... | ... | ... | ... | ... | ... | ... | ... |
| Saudi Arabia | ... | ... | ... | ... | ... | ... | ... | ... | ... |
| Slovak Republic | 25 | 27 | 24 | 0.38 | 0.37 | 0.41 | -0.25 | 1.17 | 0.38 |
| South Africa | ... | ... | ... | ... | ... | ... | ... | ... | ... |
| Spain | 19 | 20 | 19 | 0.44 | 0.43 | 0.47 | -0.24 | 1.03 | 0.32 |
| Sweden | 1 | 1 | 1 | 0.55 | 0.58 | 0.61 | 0.56 | 0.64 | 0.60 |
| Switzerland | 10 | 9 | 4 | 0.51 | 0.53 | 0.58 | 0.35 | 1.14 | 0.70 |
| Turkey | 30 | 30 | 30 | 0.32 | 0.32 | 0.33 | 0.06 | 0.26 | 0.15 |
| United Kingdom | 15 | 17 | 18 | 0.47 | 0.47 | 0.49 | -0.12 | 0.48 | 0.15 |
| United States | 8 | 8 | 10 | 0.53 | 0.54 | 0.54 | 0.18 | 0.18 | 0.18 |

두 번째 특징은 사회통합 지수의 성장률이 성장동력에 비해 매우 미약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성장률은 평균 0.12%에 그쳐 2000년 수준이 1990년 수준과 같거나 오히려 더 하락한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여기에는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 해당된다.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가속화되는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2008년의 수준이 1990년 수준보다도 낮은 지수를 보여 전기간 사회통합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림 8〉 사회통합 지수의 국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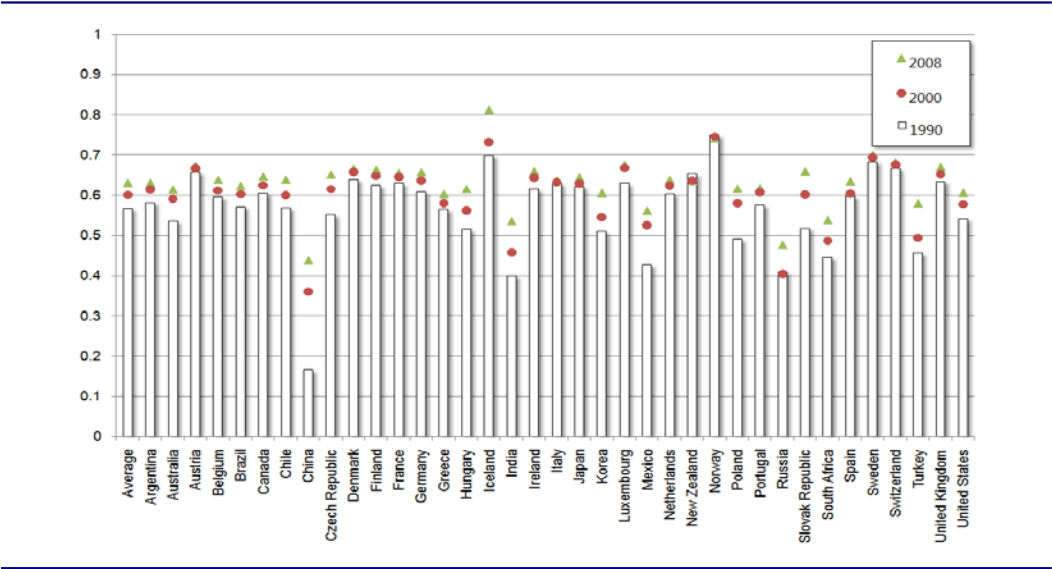
3) 환경

환경의 국가 간 특성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환경지수가 이미 높은 국가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환경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개선 정도가 미미한 반면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환경 지수가 낮은 국가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환경 분야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었다. 환경분야에서의 격차 축소는 개도국의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선진국의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장기적인 친환경적 발전전략 설정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분야의 수렴현상은 성장동력과 같은 추세를 보이지만 사회통합과는 차별적이다.

환경분야 지수를 살펴보면 1990년과 2000년에는 노르웨이가 가장 우수하였는데, 2008년에는 아이슬란드가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노르웨이와 함께 90년대, 2000년대, 전기간 모두에 걸쳐 환경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양국 모두 환경 상위권에 속하는 국

가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환경 지수의 국가별 추이



한편, 국가별 환경 지수의 수준 및 증가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우선 중국은 1990년, 2000년, 2008년 현재 환경 수준이 가장 낮지만 환경지수의 성장률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전기간에 걸쳐 중국의 환경지수는 5.57%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세계 평균 0.60%의 9배를 능가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8.11%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90년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향상을 보인 국가들은 멕시코, 인도이며 2000년대에 큰 개선을 보인 국가들은 중국, 아이슬란드, 러시아, 터키 등이다. 전체적으로 멕시코와 터키도 세계 평균 연평균 증가율(0.60%)의 2배를 능가하는 약진을 하였다. 그리고 성장동력과 사회통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이 사회통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성장동력 보다는 개선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국가별 환경지수 수준 및 변화율

| Year | 순위 | | | 지수값 | | | 연평균변화율 (%) | | |
|-----------|------|------|------|------|------|------|------------|-------|-------|
| | 1990 | 2000 | 2008 | 1990 | 2000 | 2008 | 90-00 | 00-08 | 90-08 |
| Average | ... | ... | ... | 0.59 | 0.62 | 0.65 | 0.51 | 0.54 | 0.53 |
| Argentina | ... | ... | ... | ... | ... | ... | ... | ... | ... |
| Australia | 22 | 22 | 25 | 0.61 | 0.63 | 0.64 | 0.35 | 0.20 | 0.29 |
| Austria | 5 | 5 | 5 | 0.68 | 0.68 | 0.68 | 0.10 | 0.05 | 0.08 |
| Belgium | 15 | 20 | 22 | 0.63 | 0.64 | 0.65 | 0.05 | 0.37 | 0.19 |

| | | | | | | | | | |
|-----------------|-----|-----|-----|------|------|------|-------|-------|-------|
| Brazil | 26 | 29 | 31 | 0.56 | 0.59 | 0.61 | 0.54 | 0.44 | 0.49 |
| Canada | 7 | 7 | 6 | 0.66 | 0.67 | 0.68 | 0.07 | 0.19 | 0.13 |
| Chile | 27 | 30 | 29 | 0.55 | 0.59 | 0.63 | 0.64 | 0.79 | 0.71 |
| China | 36 | 35 | 35 | 0.17 | 0.42 | 0.52 | 9.16 | 2.81 | 6.29 |
| Czech Republic | 24 | 23 | 20 | 0.57 | 0.63 | 0.66 | 0.94 | 0.62 | 0.80 |
| Denmark | 11 | 11 | 13 | 0.65 | 0.66 | 0.67 | 0.23 | 0.12 | 0.18 |
| Finland | 12 | 10 | 9 | 0.64 | 0.66 | 0.68 | 0.32 | 0.21 | 0.27 |
| France | 8 | 9 | 11 | 0.66 | 0.66 | 0.67 | 0.11 | 0.13 | 0.12 |
| Germany | 17 | 16 | 14 | 0.63 | 0.65 | 0.67 | 0.33 | 0.32 | 0.32 |
| Greece | 21 | 21 | 18 | 0.61 | 0.63 | 0.66 | 0.37 | 0.57 | 0.46 |
| Hungary | 25 | 26 | 24 | 0.56 | 0.61 | 0.64 | 0.79 | 0.72 | 0.76 |
| Iceland | 2 | 2 | 1 | 0.72 | 0.75 | 0.83 | 0.39 | 1.18 | 0.74 |
| India | 35 | 36 | 36 | 0.29 | 0.37 | 0.49 | 2.65 | 3.40 | 2.99 |
| Indonesia | ... | ... | ... | ... | ... | ... | ... | ... | ... |
| Ireland | 18 | 12 | 8 | 0.63 | 0.66 | 0.68 | 0.49 | 0.30 | 0.41 |
| Italy | 9 | 14 | 17 | 0.65 | 0.66 | 0.66 | 0.05 | 0.09 | 0.07 |
| Japan | 10 | 15 | 16 | 0.65 | 0.65 | 0.66 | 0.07 | 0.21 | 0.13 |
| Korea | 28 | 31 | 28 | 0.55 | 0.57 | 0.63 | 0.43 | 1.13 | 0.74 |
| Luxembourg | 16 | 6 | 7 | 0.63 | 0.67 | 0.68 | 0.59 | 0.12 | 0.38 |
| Mexico | 31 | 28 | 32 | 0.52 | 0.59 | 0.61 | 1.30 | 0.41 | 0.90 |
| Netherlands | 20 | 18 | 23 | 0.62 | 0.64 | 0.65 | 0.28 | 0.25 | 0.27 |
| New Zealand | 6 | 8 | 12 | 0.67 | 0.67 | 0.67 | -0.07 | 0.08 | 0.00 |
| Norway | 1 | 1 | 2 | 0.77 | 0.76 | 0.75 | -0.13 | -0.12 | -0.13 |
| Poland | 30 | 27 | 27 | 0.54 | 0.61 | 0.63 | 1.21 | 0.58 | 0.93 |
| Portugal | 19 | 17 | 21 | 0.63 | 0.65 | 0.66 | 0.32 | 0.16 | 0.25 |
| Russia | 33 | 33 | 33 | 0.50 | 0.49 | 0.57 | -0.11 | 1.86 | 0.76 |
| Saudi Arabia | ... | ... | ... | ... | ... | ... | ... | ... | ... |
| Slovak Republic | 29 | 25 | 15 | 0.55 | 0.62 | 0.66 | 1.19 | 0.91 | 1.07 |
| South Africa | 34 | 34 | 34 | 0.44 | 0.48 | 0.53 | 0.97 | 1.33 | 1.13 |
| Spain | 13 | 19 | 19 | 0.64 | 0.64 | 0.66 | -0.04 | 0.36 | 0.14 |
| Sweden | 3 | 3 | 3 | 0.70 | 0.70 | 0.71 | 0.11 | 0.05 | 0.08 |
| Switzerland | 4 | 4 | 4 | 0.68 | 0.69 | 0.69 | 0.12 | 0.07 | 0.10 |
| Turkey | 32 | 32 | 30 | 0.52 | 0.56 | 0.62 | 0.82 | 1.31 | 1.04 |
| United Kingdom | 14 | 13 | 10 | 0.64 | 0.66 | 0.67 | 0.24 | 0.29 | 0.26 |
| United States | 23 | 24 | 26 | 0.60 | 0.62 | 0.64 | 0.36 | 0.33 | 0.34 |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1990년대, 2000년대, 전기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대분류의 수준과 변화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기간에서 성장동력이 3개 대분류 중 가장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소득보다도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동력 및 소득은 200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을 선두로 한 1990년대의

장기 호황과 2008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은 성장동력과 반대로 2000년대에 더 빨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동력의 증가가 사회통합의 증가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넷째, 사회통합에 비해 환경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양자 간의 증가율 차이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현저히 감소하였다. 다섯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에 힘입어 환경은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성장동력에서는 룩셈부르크, 미국 등 성장동력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지수 성장률의 둔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성장동력 지수 수준이 높지 않은 유럽의 소국인 폴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1990년대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에도 러시아,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성장동력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성장동력의 국가 간 격차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통합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상위권 국가의 성장세가 평균보다 높아 이들 국가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하위국가들은 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사회통합 지수의 성장률이 워낙 낮아 다수 국가의 2000년 수준이 199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다.

환경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기존 환경 선진국들에 비해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환경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국가 간 격차가 대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중국의 환경지수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전기간에 걸쳐 가장 빠른 개선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OECD와 G20에 해당하는 선도국가들이 꾸준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속해 왔으나 영역별 혹은 국가 간 발전의 패턴과 속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우선 영역별로 보면 성장동력 부문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이 지속되기는 했으나, 그 지속세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통합부문은 2000년대 이후부터, 환경부문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성장동력 부문의 둔화와 사회 및 환경 부문의 상대적 약진’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겪었던 일련의 위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넘어 환경보호와 사회통합에 대한 일련의 글로벌 아젠더가 국제협력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의 모색을 위한 국가별 노력이 단순 경제성장의 노력을 상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20년간의 경제사회발전의 부문별 국가 간 격차의 세계적 추세도 확인되었다. 성장동력 부문의 경우는 룩셈부르크, 미국 등과 같은 성장동력 선도국가들의 성장률은 침체되는 추세를 보이

는 반면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 칠레,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등과 같이 저성장동력 국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성장지수의 평균값도 증가하였고 국가 간 격차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분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1990년대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 지수가 가장 낮았던 중국과 인도의 환경 분야의 약진은 환경 지수 평균 값 상승과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증대, 환경관련 조약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 아젠더의 출현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이 확대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성장동력 및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선도국가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관용하는 사회적 역량의 증가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의 역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고착상태임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적 글로벌 불평등 확대’를 의미한다. 개인의 삶의 질과 역능성, 배려와 관용이 확대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주요한 구성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회적 글로벌 불균형 상태는 면밀히 진단하여 해결해야 할 새로운 초국적 주요 현안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박명호 외, 경제사회발전지표: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박명호 외, 「경제사회발전 트렌드분석: 지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Maddison, Angus (2010), “Statistics on World Population, GDP and Per Capita GDP, 1–2008 AD,” University of Groningen.

Osberg, L. and A. Sharpe (2005),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1, Number 2, pp.311–336.